

景氣變動과 女性服飾 실루엣의 變化와의 比較分析

홍선옥·김진구*

한양여자전문대학 의상학과 전임강사,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n Analysis on the Relation between the Business Cycle and the Change of the Fashion Silhouette

Sun-Ok Hong, Jin-Goo Kim*

Department of Apparel Design, Full-time Instructor Hanyang Women's Junior College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Professor of Hanyang University

目 次

Abstract	3. 經濟와 服飾變化와의 관계
I. 序 論	III. 研究方法 및 節次
II. 理論的 背景	IV. 研究結果
1. 景氣變動의 요인과 景氣循環	V. 結 論
2. 韓國의 景氣循環	參考文獻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usiness cycle and the fashion of silhouette from 1956 to 1992.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 of them.

In this study, the coincident composite index was used as business cycle and change of skirt in length and width, collar and pants in width were thoroughly checked through graphs and photographs.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1. When the economy is to ascend, the skirts are short and narrow. On the contrary, when the economy is descend, they are long and wide.
2. The business cycle gives influence on skirts line and width, that is, about 18%, 33% of total changes.
3. In change of fashion, skirts length and width ha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and they showed a tendency to move together. On the other hand, the change of collar and pants in width have no connection with business fluctuation.
4. The change of fashion is affected by the movement of itself. According to analysis that includes the trend of skirts, about 50%, and 35% of changes in skirts length and width were decided by them. And about 52% and 35% of change in collar and pants width were decided by them.

I. 序 論

服飾은 광대한 범위의 사회적 현상이다¹⁾. 그러므로服飾은 한 사회를 전체적으로 특징짓는 상황을 가장 가시적으로 표현해 준다고 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즉 그 시대의 사회환경을 깊이 반영하면서 발생하고 절정에 달하며 쇠퇴하는 질서 속에서服飾이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다.

服飾變化에는 사회의 기술적 요인, 정치적 요인, 사회적 요인 그리고 경제적 요인 등이 상호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복식에 반영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복식변화현상을 복합적인 요인으로 보아왔고, 총괄적인 연구만이 이루어져 어느 한가지 구체적인 요인분석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服飾變化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가운데 경제적 측면 즉, 우리나라의 총체적 경제활동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景氣循環變動과女性服飾실루엣變化를 관련지어서 이들이 실제로 어떻게, 어느 정도 상호관련이 있는가? 하는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6·25전쟁 이후 지난 40년간 우리 경제가 겪은 아홉번의景氣循環에서 나타난 특징과 현대 여성복식 실루엣의 변화를 cycle화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측면과 여성복식 유행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향후 패션 전개방향과 앞으로의 패션산업 전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론적 체계를 세우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복식의 주기적 변화를 경기변동이나 경제 활동의 전개방향 예측을 위한 한 가지 지표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理論的 背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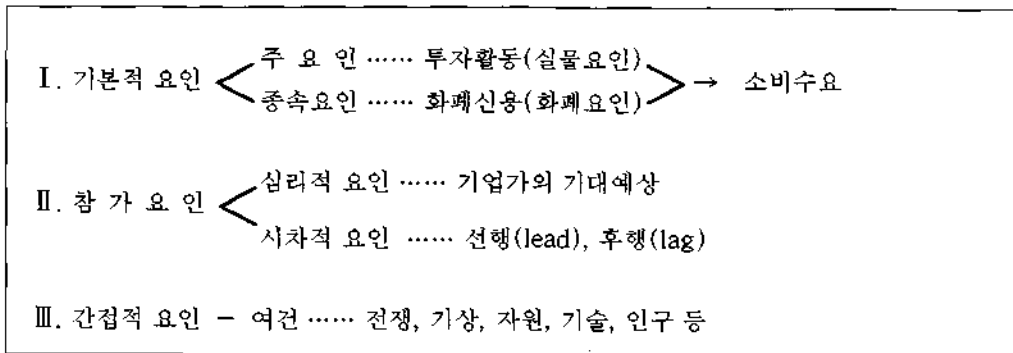
1. 景氣變動의 요인과 景氣循環

1) Karlyne Anspach, *The Why of Fashion*(Arnes : Lowastute, 1969) p. xiii.

景氣란 生産, 販賣, 雇傭등 한 나라의 총체적인 경제활동 수준을 일컫는다²⁾.

景氣가 추세곡선(trend curve)과 비교하여 그 이상 또는 그 이하로 變動하는 것을 景氣變動(business of fluctuation)이라고 한다. 하나의 조직체로서의 韓國經濟는 내부 속성상 자체의 리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景氣는 계속 상승하다가도 어떤 시점을 지나면 下降局面으로 접어들고, 下降局面이 당분간 계속된 다음 다시 上昇局面으로 접어든다. 이와 같이 景氣는 上昇局面, 頂上 또는 上部轉換點, 下降局面, 溪谷 또는 下部轉換點, 그리고 다시 上昇局面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이클을 그리면서 變動하는데, 이를 景氣循環(business cycle, trade cycle)이라고 부른다³⁾.

그런데 경기 변동이론은 19세기 이래 시대적 배경과 특징을 가지고 많은 변천을 하여 왔으나 일반적으로 경기의 변동요인은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으로 대별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요인에는 실물적 요인과 화폐적 요인이 기본적인 요인으로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여기에 기업가의 예상과 시차적 요인 등이 가세되어 전체의 경기변동을 가져오는 것으로 본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기 변동은 기본적으로 실물면의 투자활동과 화폐적 측면에서 통화신용의 수축 및 팽창이 주요인 또는 종속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에 소비수요의 변화 또는 다른 측면에서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경기변동 요인은 위의 간접적인 여건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됨은 물론 이 기본적 요인이 경기 변동을 야기하는 폭과 깊이는 기업가와 소비자의 심리적 요인과 시차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림 1> 경기 변동 발생요인의 상호 관계⁴⁾

好況과 不況 또는 景氣의 확장과 수축의 연속으로 표현할 수 있는 景氣循環은 이미 19세기 말부터 경제 분석의 주요대상이 되어 왔다.

景氣變動·分析의 출발점으로 Burns과 Mitchell⁵⁾은 다음과 같이, 景氣循環이란 주로 기업 활동에 의하여 경제가 운용되고 있는 국가의 총체적 경제활동에서 나타나는 변동의 한 형태

2) 白雄基, "경기순환과 정책대응의 방향",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포럼, 제34호, (1994), p. 2.
 3) 宋丙浩, 한국경제론(서울: 박영사, 1987), p. 269.
 4) 한국은행, "경기 변동과 금융정책", 한국은행 조사월보(1974), p. 20.
 5) A. Burns and W. Mitchell, Measuring Business cycles(NBER, 1946), p. 3. 김기화, 경기순환이론(서울: 다산출판사, 1990), P. 16. 재인용.

이다. 하나의 순환은 수 많은 경제 활동들에서 거의 동시에 발생하는 팽창과 경기후퇴와 위축 그리고 다음 순환의 팽창 국면으로 연결되어지는 회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연속적인 변동은 반복적이지만 주기적인 것은 아니다. 순환의 주기는 1년 이상에서 10년 혹은 12년의 주기 등 다양하다. 이러한 순환들은 그 자체와 비슷한 진폭을 가지면서 또한 유사한 특징을 나타내는 더 짧은 순환들로 나눌 수 없다고 정의한다.

또한 Mitchell⁶⁾은 경기순환을 經濟內的 要因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발생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Mitchell은 기업가의 이윤추구가 경제현상의 주체를 이루고 나아가서 경기 변동의 主要因이 된다고 한다. 불황기에는 생산요소가 저렴하고, 재고가 적고, 이자가 낮으며, 은행이 신용을 확대하려 하기 때문에 기업가의 이윤이 차츰 증가하여 경기의 회복을 초래한다. 경기가 차츰 회복되어 好況이 정점에 달하게 되면 이와 반대로 생산요소 비용이 증가하고, 이자가 높아지며 또한 과대 생산으로 재고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윤이 줄게 되어 경기는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景氣循環은 週期の 長短에 따라 主循環(major cycle), 少循環(minor cycle), 建築循環(building cycle), 長期循環(long cycle)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主循環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경기순환으로 이의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쥐글러」순환(Juglar cycle)이라고도 한다. 週期는 대체로 6~10년으로 설비투자의 변동이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小循環은 발견자의 이름에 따라 「키친」循環(Kitchen cycle)이라고 하며 週期는 대체로 40개월 정도이다. 在庫投資의 변동이 小循環의 主要因으로 지적되고 있다.

建築循環은 평균 주기가 15~25년으로 Hansen, Kuznets, Rigglemen 등에 의해서 장기 통계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발견되었다. 一名 「쿠즈넷」循環(Kuznets cycle)이라고도 하며, 순환의 主要因으로 건축활동의 변동을 들고 있다.

長期循環은 週期가 50~60年으로 이를 「콘드라티프」循環(Kondratieff cycle)이라고도 하며 순환의 주요인으로는 기술의 대혁신이나 대발명을 들고 있다. 주기가 너무 길어 통계 자료의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별로 많은 연구의 대상은 되지 않고 있다.⁷⁾

2. 韓國의 景氣循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基準循環日을 추출한 대표적 예는 다음과 같다. 한국은행이 1971년에 경기동향지수(Diffusion Index; DI)를 편제하면서 1955년에서 1970년대초에 이르는 기간 중의 기준순환일을 결정한 일이 있고 이러한 작업경험을 토대로 1980년에 경기종합지수(Composite Index; CI) 試案 편제작업의 일환으로 1955년에서 1970년대 말까지 기간 중의 기준순환일을 추출한 바 있다. 또 하나의 기준순환일은 경제기획원이 1981년 3월 이후 현재 공식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CI를 편제하면서 동시에 발표해 오고 있는 1960년대 이후 기간중의 기준순환일이 있다.⁸⁾

〈표 1〉⁹⁾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景氣循環은 1950년대 중반부터 1992년까지 그 週

6) 徐相穆, 金大泳, 경기 변동과 경기 종합지표, 한국개발연구원(1981), p. 5.

7) ibid, p. 3.

8) 丁雄鏞, “우리나라 경기변동의 기준순환일에 관한 연구”,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실, 금융경제연구 제7호, (1990) 11.

9) 白雄基(1994), p. 3.

<표 1> 基準循環日¹⁾

	底點 (年; 月)	頂點 (年; 月)	底點 (年; 月)	擴張期間 底點→頂點	收縮期間 頂點→底點	全循環期間 底點→底點	全循環期間 頂點→頂點
제1순환	—	57:1	58:8	—	19	—	33
제2순환	58:8	59:10	61:9	14	23	37	40
제3순환	61:9	63:2	64:2	17	12	29	98
제4순환	64:2	71:4	72:3	86	11	97	34
제5순환	72:3	74:2	75:6	23	16	39	60
제6순환	75:6	79:2	80:9	44	19	63	60
제7순환	80:9	84:2	85:9	41	17	60	47
제8순환	85:9	88:1	89:7	28	18	46	36
제9순환	89:7	91:1 ^p	—	18	—	—	—
평균순환 기간	—	—	—	33.9 (23.8) ²⁾	16.9 (3.9)	53.0 (23.0)	51.0 (21.9)

註: p는 잠정치

1) 제4순환의 頂點인 71년 4월까지의 景氣轉換點은 韓國銀行의 基準循環日을 따랐으며, 그 이후는 統計廳의 基準循環日을 따랐음(韓國銀行의 基準循環日은 「調査統計月報」, 1982년 5월호 참조)

2) ()안의 값은 표준편차임.

<표 2> 日本의 基準循環日

	期 間
제1순환	~ 1951. 10
제2순환	1951. 10 ~ 1954. 10
제3순환	1954. 10 ~ 1958. 6
제4순환	1958. 6 ~ 1962. 10
제5순환	1962. 10 ~ 1965. 10
제6순환	1965. 10 ~ 1971. 12
제7순환	1971. 12 ~ 1975. 3
제8순환	1975. 3 ~ 1980. 10(?)
제9순환	1980. 10 ~ ?

資料: 金森久雄, 「日本の景氣豫測」,
日本中央 經濟社, 1982.

의 주순환의 주기가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짧게 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경기의 변동이 빈번했고, 고도성장과정에서 경제적 안정성도 낮았다는 것을 의미한다¹¹⁾.

10) 宋丙洛(1987), p. 271

11) 宋丙洛(1987), pp. 270~271.

期는 긴 것은 8년이 되는 것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표 2>에 나타난 일본의 경기순환¹⁰⁾과 마찬가지로 3~4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美國과 西歐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사이클로 간주되는 主循環(major cycle)의 주기가 8~9년인데 비하면, 한국이나 일본의 경기순환의 주기는 상당히 짧은 편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성장이 주순환이 발생할 당시의 미국이나 서구의 경제성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고, 빈번한 경기변동을 초래한 經濟內·外的 要因이 단기간에 수없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경험한 景氣循環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景氣循環의 평균주기는 51~53개월, 평균확장기간은 33.9 개월, 평균수축기간은 16.9 개월로 추정되었다. 확장기간의 표준편차는 23.8개월로 순환기에 따라 지속기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반면 수축기간의 표준편차는 3.9개월로 지속기간의 차이가 작게 나타났다(표 3 참조).

둘째, 각 변수의 증가율이 표준편차로 측정되는 변동성은 경기변동의 안전성 정도를 의미하는 지표로 흔히 인용되는데, 이에 관련된 우리나라 경기순환의 특징은 1980년대에 들어와 변동성이 크게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1980년대에 안전성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한 결과 경제규모가 크게 신장하여 외부충격의 영향력이 1970년대보다 작아졌다.

둘째, 정부의 景氣對應能力이 1970년대보다 향상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景氣上昇은 완만하게 진행되는 반면 下降은 급속하게 진행되는 소위 '景氣循環의 非對稱性'이 우리나라의 景氣循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경기순환의 평균확장기간(33.9개월)이 평균수축기간(16.9개월)에 비해 2배 가량 길다는 사실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기순환의 비대칭성은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의 경기순환에는 이미 정형화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확장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뒤이어 계속되는 수축기간이 길어지는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넷째, 우리나라 景氣循環은 미국과 일본의 경기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기가 대체로 수출에 의해서 좌우되었으며, 수출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수출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일본, EC 등과 같은 선진국의 경기에 큰 영향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준 순환일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경기변동과정을 서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제1순환(~1958. 8)

② 제2순환(1958. 8 ~ 1961. 9)

③ 제3순환(1961. 9 ~ 1964. 2)

4.19혁명 이후 사회·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하여 침체된 경기는 5.16以後 군사정부의 출범과 함께 1961年 9월 전환점으로 급속히 회복하기 시작하였으며 상승세는 63年 2月까지 계속되었다. 과열된 景氣를 진정시키기 위해 실시된 정부의 긴축정책으로 景氣는 1963年 2월 전환점으로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여 1964年 2月까지 하락세가 계속되었다.

④ 제4순환(1964. 2 ~ 1972. 3)

당시의 매우 밝은 국제경기下에서 추진된 강력한 수출진흥정책과 월남파병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景氣는 1965年 初부터 1969年 末까지 지속적 상승세를 유지하였다.

1960年代 後半까지 지속된 好況은 정부의 경제안정정책(1969年 11月 3日, 1970年 1月 7日)의 실시후 다시 약간씩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⑤ 제5순환(1972. 3 ~ 1975. 6)

수축기로 접어든 景氣는 1971年 末까지 계속되었으나 1972年 初에 실시된 정부의 경기부양정책(1972年 2月 14日)에 힘입어 1972年 3월을 전환점으로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고 사채동결

및 금리인하정책(1972年 8月 3日)으로 景氣는 더욱 상승하였다. 景氣의 상승세는 1974年 初까지 계속되었으나 세계석유파동(1973年 10月)으로 인해 1974年 2月을 전환점으로 급속히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⑥ 제6순환(1975. 6 ~ 1980. 9)

경기하락은 1975년초까지 계속되다가 정부의 불황타개조치(1974년 12월 7일)와 다소 호전된 세계경기에 힘입어 1975년 6월을 전환점으로 다시 확장기에 접어들었다. 그후 경기상승은 계속되어 頂點에 달하였으나 수출부진, 세계석유파동, 긴축통화정책 등으로 1979년 2월 이후부터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⑦ 제7순환(1980. 9 ~ 1985. 9)

세계적인 불황의 여파와 미국의 고금리 지속에 따라 극히 완만하고 불규칙한 회복세를 보이다가 美·日경기의 호전을 계기로 10% 前後의 성장세를 나타냈던 1981 ~ 83년의 경기상승이 있었고, 미국 경기의 둔화와 내수의 안정화에 따라 1984~85년에 경기둔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⑧ 제8순환(1985. 9 ~ 1989. 7)

低金利, 低油價에 따른 세계경기의 회복세에 일본 엔화시세의 급등에 따른 수출경쟁력의 상대적 강세가 가세되어 수출의 급증을 중심으로 연 12.8%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던 1986~1988년에 경기가 상승하였고, 이러한 3低요인의 퇴조화와 「원」화의 지속적 절상 그리고 정치적 민주화 추진에 따른 노사분규의 격화 등이 원인이 되어 나타난 1988~1989년에는 경기후퇴가 있었다.

⑨ 제9순환(1989. 7 ~ 1992. 11(?))

정부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투기를 단속하기 위해 1989년 4월에 「주택 200만호 건설을 위한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였고, 7월과 11월에는 각각 「臨時投資稅額控除制度」와 「經濟社會安定과 競爭力 提高를 위한 당면정책」등 연속적인 경기부양조치를 실시함에 따라 景氣는 1989년 7월을 底點으로 제9순환의 확장국면에 진입하였다.

경기상승기인 1990년 4월에는 景氣擴大와 부동산투기의 지속적인 억제를 위해서 금융실명제의 실시 유보를 비롯하여 특별설비투자금의 증액, 전세자금의 공급확대를 포함한 「4.4 경제 활성화 종합정책」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4.4대책은 따마침 일어난 건설투자붐과 맞물려 국내 경기를 단기간에 과열시켰으며,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1990~91년의 경제는 물가상승과 국제수지 악화라는 경제난국에 봉착하게 되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1992년 11월경에 생산활동 및 기타 경제활동이 가장 부진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3. 經濟와 服飾變化와의 關係

패션의 흐름과 변화는 대개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¹²⁾. 의류산업은 우리의 주요한 산업중의 하나이고 경제순환에 중요하게 기여하며¹³⁾ 국가경제에서 절대 필요한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¹⁴⁾. 만약 패션산업이 정체하게 된다면 우리는 모두 경제적인 고통을 감

12) Karlyne Anspach(1969), p.50.

13) ibid, p. 47

14) Jeanette C. Lauer and Robert H. Lauer, *Fashion Power*.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1981), p. 219.

수하게 될 것이다¹⁵⁾

상업경기 cycle과 스커트 길이의 관계 또한 유행이라는 측면에서 경기와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경기가 하락할 때 만약 hemline이 내려간다면, 제조업자들의 장사는 활발해져 더 많은 옷감재료가 의복에 소요되어진다¹⁶⁾. 이처럼 한 국가나 사회의 경제구조와 경제적 동요는 복식의 변화와 경향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데, 학자에 따라서 나타난 理論들이 각기 다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Greenwood¹⁷⁾는 한 나라의 일반적인 經濟構造와 經濟不安은 패션의 변화속도와 패션흐름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經濟的 要因을 富의 擴大와 經濟的 安定으로 나누었다. 즉, 과거에는 일부 귀족이나 지배계층 중심으로 일어났던 경제활동이나 패션추구가 현대로 올수록 중류층이 확대됨에 따라 이들을 중심으로 패션이 형성된다는 것과 패션이 경제적 불황, 호황, 인플레이션 등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경제적 불황과 호황의 정도에 따라 스커트 길이가 변한다고 설명하고, 경제가 침체될 때 섬유산업을 비롯한 기업들은 옷감의 소비가 많은 넓고 긴 스커트로 추가소비를 유도하게 되고 이 새로운 스타일이 대중의 인정을 받을 때는 옷감의 수요를 증가시키게 되어 옷감의 가격이 상승한다. 이러한 가격상승을 보상하고 비용을 적절한 가격범위로 제한하기 위해서 스커트는 다시 짧게 유도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心理的 理論으로 경제가 침체될 때 소비자들의 마음도 침체된다는 것으로서 긴 스커트의 이미지는 짧은 스커트의 이미지보다 더 침체적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그들 마음상태에 따라 소비형태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Greenwood는 經濟的 要因의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經濟가 不況일 때는 스커트 길이가 길어지고 經濟가 好況일 때는 스커트 길이가 짧아진다고 밝혔다.

Troxell¹⁸⁾은 패션에 대한 흥미와 관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 가운데 經濟的 要因을 크게 강조하였다. 이러한 理論을 바탕으로 스커트 길이와 허리선의 변화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경제가 호황일 때는 스커트 길이는 짧아지고 허리는 느슨해지며, 경제가 침체될 때 스커트 길이는 길어지고 허리는 조이는 의복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Kroeber¹⁹⁾는 여성의복의 패션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스커트 길이, 폭, 허리선 위치와 폭, 목둘레선의 위치와 폭 등 6가지의 측정기준을 설정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변화의 cycle을 발견해냈다. 그는 패션의 진폭이 만족되려면 적어도 1세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적어도 몇 몇의 사람에게 의해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복스타일에서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것과 경제 변동 사이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고 보아 의복스타일의 어떤 부분의 길이나 폭은 경제변동이 증가함에 따라 줄어들고 경제변동이 심하지 않을 때는 늘어난다고 했다. 그러나 스커트 폭과의 관계에서는 그 반대라고 했다. 즉,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는 스커트 길이는 줄고, 스커트 폭은 넓어지며, 허리는 제 위치를 고수하고, 목둘레선은 거의 목근처에 있다고 Kroeber와

15) *ibid.*, p. 219.

16) *ibid.*, p. 219.

17) Kathryn Moore Greenwood and Mary Fox Murphy, *Fashion Innovation and Marketing*(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78), pp. 60~68.

18) Mary D. Troxell and Elaine Stone, *Fashion Merchandising*(New York: McGraw-Hill, Inc., 1981), pp. 19~21.

19) Jeanette C. Lauer, Robert H. Lauer, *Fashion Power.*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81), p. 22.

Richardson의 공동연구²⁰⁾에서 발표되었다.

Horn²¹⁾은 경제적으로 번영할 때의 의복은 풍부하고 정교해진다고 하였다. 1930년대의 세계 경제 공황시대에는 충충하고 활기없고 생기없는 의복이 유행하던 시기였고, 루즈벨트 대통령의 New Deal정책으로 경제조건이 좋았을 때 사람들은 의복을 다시 멋지게 차려입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스커트 길이가 경제상태의 반영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즉 好景氣 때에는 스커트 길이가 짧아지고 경기가 나빠져서 증권시세가 하락일 때에는 스커트 길이가 길어진다는 것이다.

경제변동에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는 증권시장 또한 여성의복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영되고 있음이 시사된 바 있다. 1929년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대폭락 직전의 활황기에 있어서 그 당시 사회의 세태에 관한 표현에 “스커트 길이가 짧아지고, 또 짧아져 더 이상 짧아질 수 없을 정도였다²²⁾.”라고 하였다. 이는 당시 여성의복의 변화로 종합주가지수가 폭대기에 와 있어 대폭락 직전의 시기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일본에서는 여성의 사이에서 유행하는 긴치마와 경기와의 상관관계가 화제가 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최근 경기선행지수가 호조를 기록하는 등 2년이 넘게 계속된 불황이 드디어 끝나는 듯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서 경기가 회복세에 돌입했다는 낙관론에 만만찮은 악재로 등장한 것이 바로 긴치마가 유행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경기회복세 발표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²³⁾는 것이다. 이는 곧 경기변동과 의복변화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이론을 현실상황에서 뒷받침하는 실례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첫째, 패션의 흐름과 변화는 경제적 요인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둘째, 학자간의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Greenwood, Troxell, Horn 연구에서는 經濟가 好況일 때는 스커트 길이가 짧아지고, 不況일 때는 스커트 길이가 길어진다는 이론을 밝힐 수 있으며, Kroeber와 Richardson연구에서는 그 반대견해도 제시되었음을 볼 수 있다.

Ⅲ. 研究方法 및 節次

본 연구는 우리나라 경기변동과 주부대상의 여성잡지에 나타난 여성복식 실루엣(스커트 길이와 폭, 칼라의 넓이, 바지통의 넓이) 변화와의 관계를 비교 분석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1. 우리나라 경기변동, 2. 여성복식 실루엣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분석대상

우리나라 경기변동은 한국은행에서 추출한 1955년 이후의 기준순환일과 경제기획원 조사

20) Alfred L. Kroeber and Jane Richardson, *Three Centuries of Women's Dress Fashion: A Quantitative Analysis* In Gordon Wills and Midgley David, *Fashion Marketing*(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73), pp. 47~105.

21) Marilyn J. Horn, *The second skin*(Boston: Houghton Mifflin Co., 1975), p. 128.

22) 三原淳雄, 김영작 역 「동경 증시 대폭락」(서울: 태테크 도서출판 삼문, 1987), p. 13~14.

23) 서울경제일보사, “서울 경제일보”, 서울: 서울 경제일보사(1993년 6월 2일)

통계국에서 발표한 1960년대 이후의 기준순환일 및 우리나라 경기종합지표를 사용하였다. 우리나라 기준순환일 및 경기종합지표를 분석대상으로 택한 이유로는 景氣란 생산, 판매, 고용 등 한 나라의 총체적인 경제활동 수준을 일컫는 것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적 변동상황을 파악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현대 여성복식 실루엣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1950년대 중반에서 1992년까지 발행된 주부 대상의 여성잡지인 여원을 비롯해서 가정조선, 여성중앙 외에 멋誌 등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해당년도와 해당건수는 <표 3>과 같다.

2. 표집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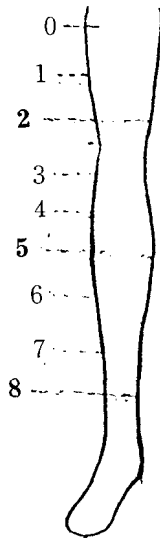
표집은 의상전문잡지인 멋誌를 제외하고, 나머지 여성잡지는 주부대상의 생활잡지를 사용하였다. 이를 택한 이유는 우리실생활과 좀더 근접해 있는 복식유행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고 사려되었기 때문이다. 게재된 해당사진은 매해 계절적 구분없이 무작위 선택표집하였으며 주로 정장스타일의 원피스나 투피스, 바지 등으로 조사대상을 한정하였고, 실루엣 요소로는 스

<표 3> 잡지에 게재된 복식관련 사진건수의 연대별 추이

연대	구분	게재잡지명	총게재 사진건수	연대	구분	게재잡지명	총게재 사진건수
1956		여원	23	1975		여성중앙	13
1957		여원	38	1976		여성중앙	15
1958		여원	6	1977		여성중앙	14
1959		여원	24	1978		여성중앙	17
1960		여원	18	1979		여성중앙	13
1961		가정조선, 여원	7	1980		여성중앙	30
1962		•	0	1981		여성중앙	10
1963		가정조선, 여원	27	1982		여성중앙	3
1964		가정조선	12	1983		멋	2
1965		•	0	1984		멋	6
1966		여원	11	1985		멋	8
1967		여원	2	1986		멋	6
1968		여원	6	1987		멋	2
1969		여원	9	1988		멋	22
1970		여성중앙	14	1989		멋	16
1971		여성중앙	17	1990		멋	21
1972		여성중앙	8	1991		멋	84
1973		여성중앙	7	1992		멋	33
1974		여성중앙	7	총게재 사진 건수 합계			551

<표 4> 의복실루엣의 측정치 기준설정 방법

의복의 실루엣 측정치	구분방법	의복의 실루엣 측정치	구분방법
스커트 길이	2: Knee(샤넬라인)	스커트 폭	1: Tight
	5: Calf(미디라인)		3: A Line
	8: Ankle(맥시라인)		5: Gather, Pleats
칼라 넓이	1: 좁다	바지통	1: 아주 좁다(맘보바지)
	3: 보통 정도		3: 보통 정도(일자바지)
	5: 넓다		5: 아주 넓다(판타롱, 통바지)



커트 길이, 스커트 폭, 칼라 넓이, 바지통 넓이 등으로 국한하였다. 여기에서 비교되는 실루엣의 변화기준 측정은 기존문헌이나 연구논문을 참고하면서, 잡지의 사진을 통해 연구와 전문가 2명의 검토를 거쳐 의견을 조정 한 후, 평가자들의 편차를 최소화하도록 객관화하여서 내용분석 측정치를 작성하였다. 이에 대한 측정기준 설정방법은 <표 4>와 같으며,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① 스커트 길이는 무릎선, 장단지선, 발목선으로 크게 셋으로 등분한 뒤에 무릎선 위, 무릎과 장단지선 사이, 장단지와 발목선 사이를 각각 2등분씩 하여 모두 8등분으로 나누어 점수화 하였다.

즉, 무릎선에 닿는 스커트는 샤넬라인 스커트로 2점, 무릎선 보다 위에 닿는 스커트 라인으로 초미니 스커트는 0점, 미니스커트는 1점, 장단지선에 닿는 스커트는 미디라인 스커트로 5점, 발목 근처에 닿는 스커트는 8점으로 척도하였다.

② 스커트 폭은 크게 셋으로 나누어 기준 설정하였다. 타이트 스커트는 폭이 좁은 것으로 1점, A라인 스커트는 폭이 보통이다로 하여 3점, 게더, 후레아, 샤랑이

있는 스커트는 폭이 넓다로 하여 5점으로 척도하였다.

③ 칼라는 다양한 종류의 칼라에 대한 일반화된 넓이의 기준이 없으므로, 사진을 통해 칼라 넓이에 대한 측정은 불가능하여, 조사자 3명의 의견을 조정 한 후에, 좁다, 보통이다, 넓다로 크게 셋으로 기준설정하여 5점으로 척도하였다.

④ 바지통 넓이에 대한 측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맘보 바지는 바지통이 아주 좁다로, 일자 바지는 바지통이 보통이다로 하였고, 판타롱 혹은 통바지는 아주 넓다, 넓다로 분류하여 5점으로 척도하였다.

3. 통계분석

의복실루엣의 각 구성요소간의 관계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SAS Package를 사용하였으

며, 분석방법으로 Correlation Analysis 및 회귀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IV. 研究結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요인이 복식의 변화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1950년대 중반부터 1992년까지의 우리나라 경제활동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인 경기순환일 <표 3>,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및 경기종합지수를 나타내는 경기변동 cycle(그림 2)과, 이 기간동안 나타난 여성복식 실루엣의 변화 즉, 스커트 길이, 스커트 폭, 칼라 넓이, 바저통의 변화를 cycle化(그림 3, 4, 5, 6)하여 상호 관련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1. 경기변동 cycle과 여성복식 실루엣 변화 cycle 비교 분석

1) 스커트 길이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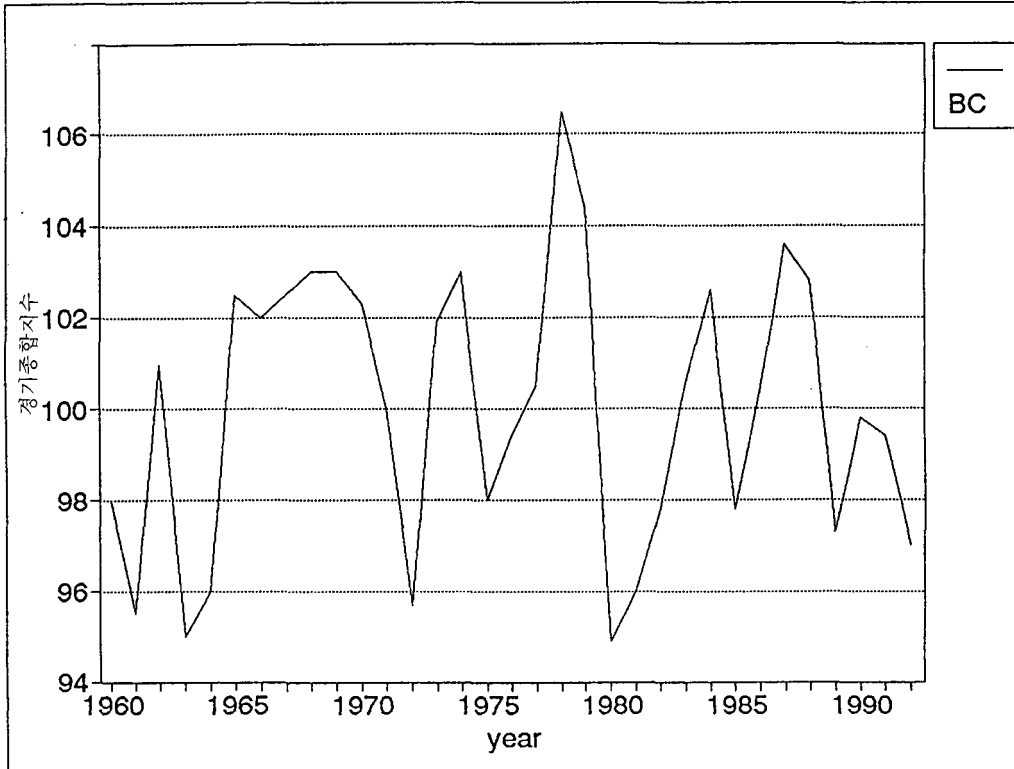
우리나라 경기순환과 스커트 길이 유행 cycle관계를 <그림 3>를 통해 보면 한 눈에 파악이 된다. 이제 이러한 기준순환일 및 경기종합지수를 중심으로 스커트 길이 변동과정을 서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경기변동의 제4순환에 해당되는 1964년에서 1971년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의 경기 상승기가 계속되었으며, 1971년 하반기 이후 일시적인 경기수축과정을 겪었으나 곧 회복하여 1973년 중에는 유례없는 호황을 가져왔다. 이 기간동안 스커트 길이의 유행도 같은 움직임을 보였다. 1964~1971년 경기상승기간동안에 스커트 길이가 (측정치 2)샤넬라인부터 차츰 올라가 (측정치 0)마이크로미니로 짧은 스커트가 유행하였다. 1971년 하반기이후 1972년에 일시적인 경기수축을 겪었을 때에는 (측정치 0)마이크로미니에서부터 다시 약간 내려와 (측정치 2~1.8)무릎선 정도까지 일시적으로 내려갔다가 1973년중에 유례없는 호황을 가져올 때 스커트 길이는 다시 (측정치 1~0)마이크로미니로 스커트라인이 올라가 유행되었다.

5순환기에 해당되는 1973년 말에 발생한 제1차 석유파동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나타난 1974~75년에는 경기후퇴로 나타났는데, 스커트 길이에서도 같은 움직임을 보였다. 당시에 (측정치 2~3)샤넬라인 정도가 유행하던 것이 1975년에는 스커트가 길어져 (측정치 6~8)미디, 맥시라인 정도로 내려간 스커트가 유행되었다.

제6순환에 해당되는 1975. 7~1980. 9에는 제1차 석유파동 이후 각국이 취한 경기부양책에 따라 선진국 경기가 점차 호전되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국내에서 설비투자 열의가 일어난 위에도 중동건설 붐까지 가세되어 1976~1978년의 경기상승국면이 나타났으며, 과열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경제안정화 시책과 이란사태에 이은 제2차 석유파동 발생에 따라 급속한 하강세를 보인 1979~80년에는 경기후퇴를 보였다. 이 기간 동안의 스커트 길이 변화를 살펴보면 1976~78년 경기상승일 때는 스커트 길이가 측정치 6~8에서 점차 올라가 (측정치 4~5)미디길이와 (측정치 2)샤넬라인 스커트가 유행되었으며, 1979, 1980년 경기후퇴에는 다시 길어져 (측정치 5~6)미디라인 스커트가 유행되었다.

제7순환기에 해당되는 1980. 9~1985. 10에는 세계적인 불황의 여파와 미국의 고금리 지속에 따라 극히 완만하고 불규칙한 회복세를 보이다가 美國, 日本경기의 호전을 계기로 성장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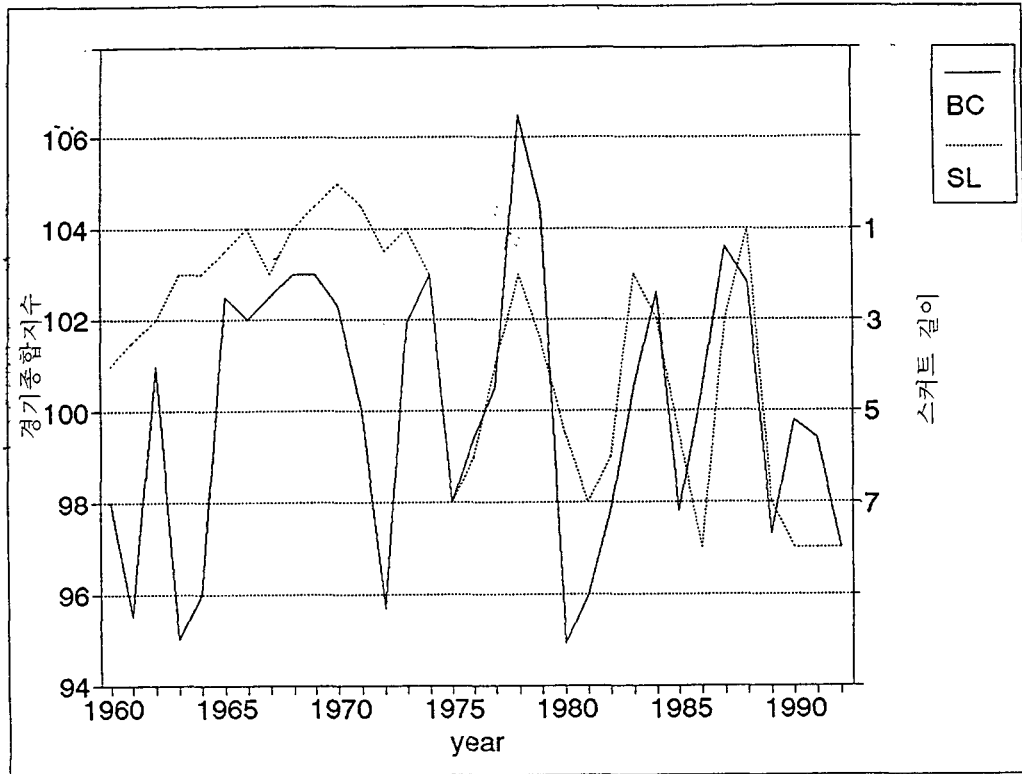
<그림 2> 경기변동 cycle

출처: 경기 종합지수(경제 기획원 조사 통제국, 1992)

를 나타냈던 1981~83년의 경기상승과 미국경기의 둔화와 내수의 안정화에 따라 나타난 1984~85년의 경기둔화가 있었다. 이 기간동안의 스킵트 길이는 1981년에 (측정치 5)미디라인 스킵트가 유행하던 것이 1985년엔 미디라인과 함께 (측정치 7~8)맥시라인 스킵트가 유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8순환에는 저금리, 저유가에 따른 세계경기의 회복세에 일본 엔화시세의 급등에 따른 수출 경쟁력의 상대적 강세가 가세되어 수출의 급증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던 1986~87년의 경기상승과 「원」화의 지속적 절상 그리고 민주화 추진에 따른 노사분규의 격화 등이 원인이 되어 나타난 1988~89년에는 경기후퇴가 있었다. 이 기간 동안의 스킵트 길이에 있어서는 1986년 하반기의 여파로 (측정치 8)맥시라인 스킵트와 유행되다가 1987년에 와서 주로 미디라인(측정치 5~6)이 유행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변동 상승리듬과 비슷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며 경기상승에 따라 스킵트 길이 또한 짧아지는 추세를 보였고, 1989년에는 (측정치 2)무릎선과 (측정치 7, 8)맥시라인 스킵트가 함께 유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후퇴의 상징인 긴치마 등장으로 불경기를 상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제9순환에는 1989~91년까지 경기상승과 1991~92년까지 경기후퇴라는 경제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스킵트 길이는 무릎선의 샤넬라인, 초미니라인스킵트와 발복 길이의 맥시스킵트가



<그림 3> 경기변동 cycle과 스커트 길이 cycle

함께 유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대로 올수록 fashion이 다양화 되는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두 사이클을 비교해 볼 때, 두 곡선의 변화가 대체적으로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으로 알 수 있다. 즉, 경기가 상승일 때는 대부분 스커트 길이가 짧거나 짧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경기가 둔화·후퇴할 때는 대부분 스커트 길이가 길거나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거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Greenwood, Troxell, Horn의 이론과 일치됨을 볼 수 있으며, 1929년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대폭락 직전의 활황기에 당시 사회세대 언급가운데 “스커트 길이가 짧아지고, 또 짧아져 더이상 짧아질 수 없을 정도”라고 표현한대로 경기상승일 때에 스커트 길이가 짧다라는 이론을 뒷받침한다고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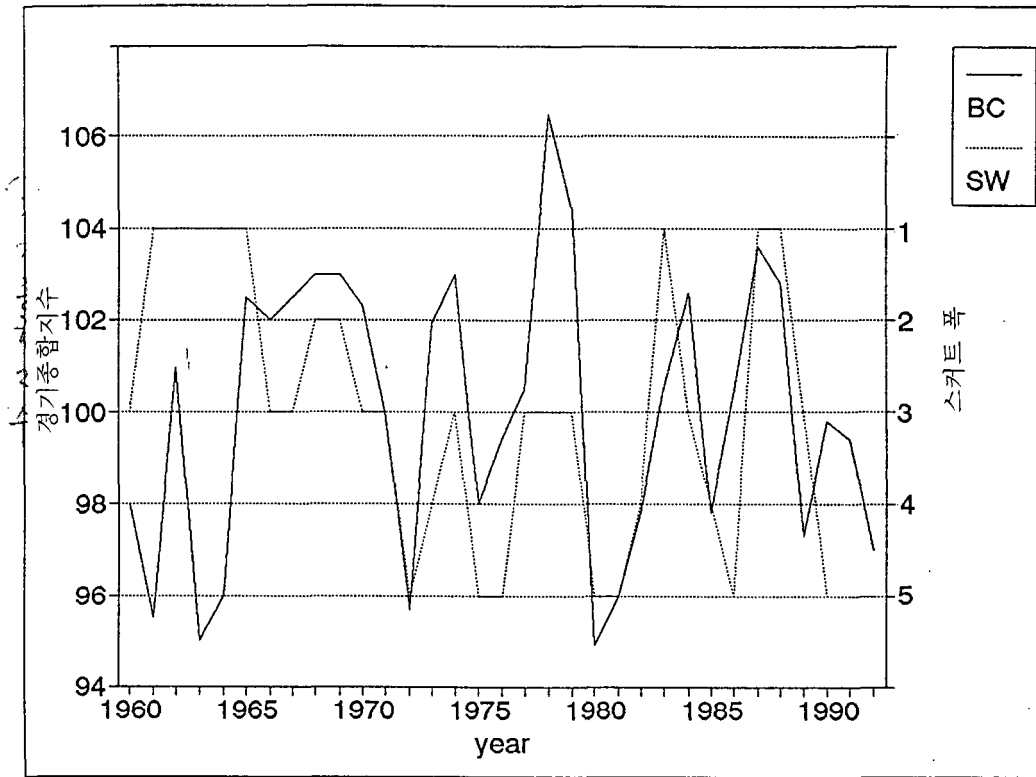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와 일치됨을 볼 수 있다.

2) 스커트 폭과의 관계

스커트 폭, 즉 스커트의 퍼진 정도와 경기변동과의 관계를 <그림 4>을 통해서 살펴보면, 두 cycle의 흐름 역시 비슷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경기변동을 중심으로 스커트 폭의 변동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4~71년 동안의 장기간 경기상승일 때를 보면 1960년대에는 스커트 폭이 타이트(tight)



<그림 4> 경기변동 cycle과 스커트 폭의 cycle

혹은 세미타이트(semitight), A라인 스커트 등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어오다가 1971년에 경기 하락시 스커트의 폭이 넓어져 게더(gather), 프리츠(pleats)스커트가 유행됨을 볼 수 있다.

1974년~75년 경기후퇴일 때 스커트 폭이 A라인이 유행하던 것이 1975년에는 폭이 넓은 후 레아 스커트, 게더 스커트, 프리츠 스커트가 유행되었다.

1976년~78년동안 살펴보면 스커트 폭이 넓은 스커트가 1975년에 유행하던 것이 1976년에는 폭이 좁아진 A라인스커트의 유행이 1978년까지 그대로 A라인 스커트가 유행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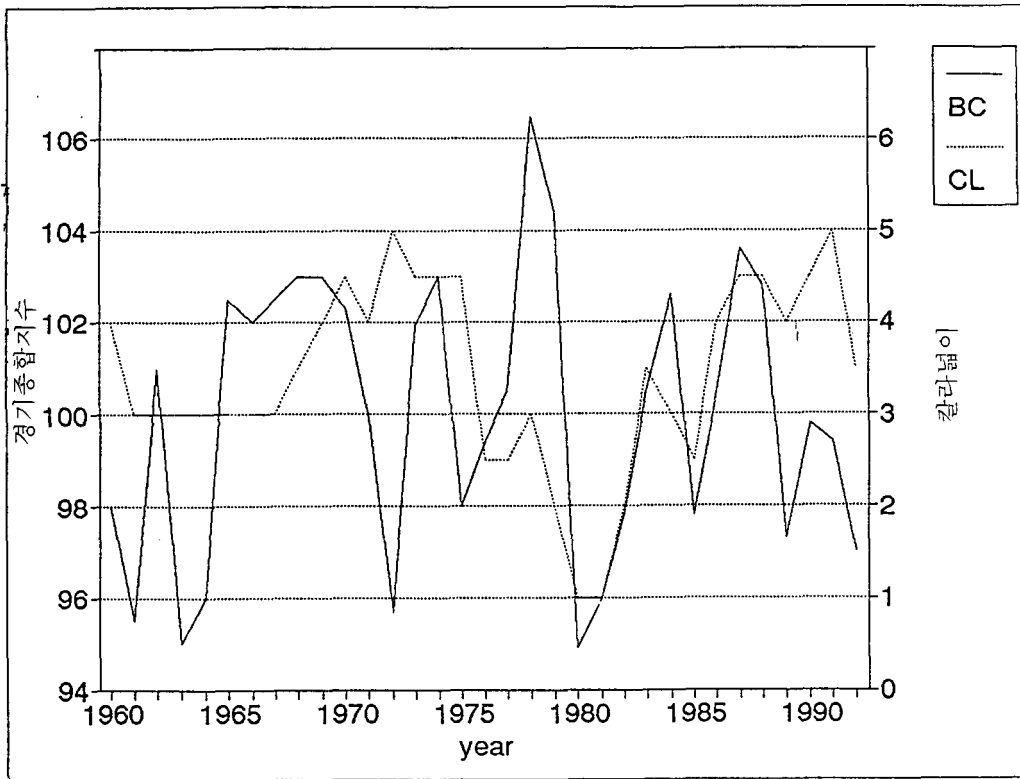
1979년~80년에는 경기후퇴가 나타났는데, 이 기간에 스커트 폭이 다시 넓어져 샤링, 게더 스커트, 프리츠 스커트 등이 유행하였으며 1980년에도 그대로 폭 넓은 스커트가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

1981년~83년의 경기상승일 때는 前년에 유행되었던 넓은 스커트 폭이 1983년에는 타이트 스커트가 유행되었다.

1984년~85년 경기둔화일 때 1985년에는 前년에 유행이었던 타이트스커트보다 폭이 넓은 A라인 및 세미타이트스커트가 유행하였다.

1986~87년 경기상승일 때, 1986년 폭넓은 스커트가 유행하던 것이 1987년에는 폭이 좁아진 스커트가 유행되었다.

1991~92년에는 폭넓은 스커트와 폭이 좁은 스커트 둘 다 유행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 또한



<그림 5> 경기변동 cycle과 칼라넓이와의 cycle

현대에 올수록 fashion이 다양화되는 추세로 나타나는 결과라고 해석된다.

이와 같은 결과로써, 경기변동과 스커트 폭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경기가 상승일 때는 스커트 폭이 좁아지는 경향을 보이거나, 좁게 나타났고 경기가 둔화될 때는 후레어나 케더프리지스 등 폭이 넓거나 혹은 넓어지는 추세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Kroeber의 연구이른 즉, 경제가 불안정할 때는 스커트 폭이 넓어지고 경제안정시에는 폭이 좁아진다는 결과와 일치됨으로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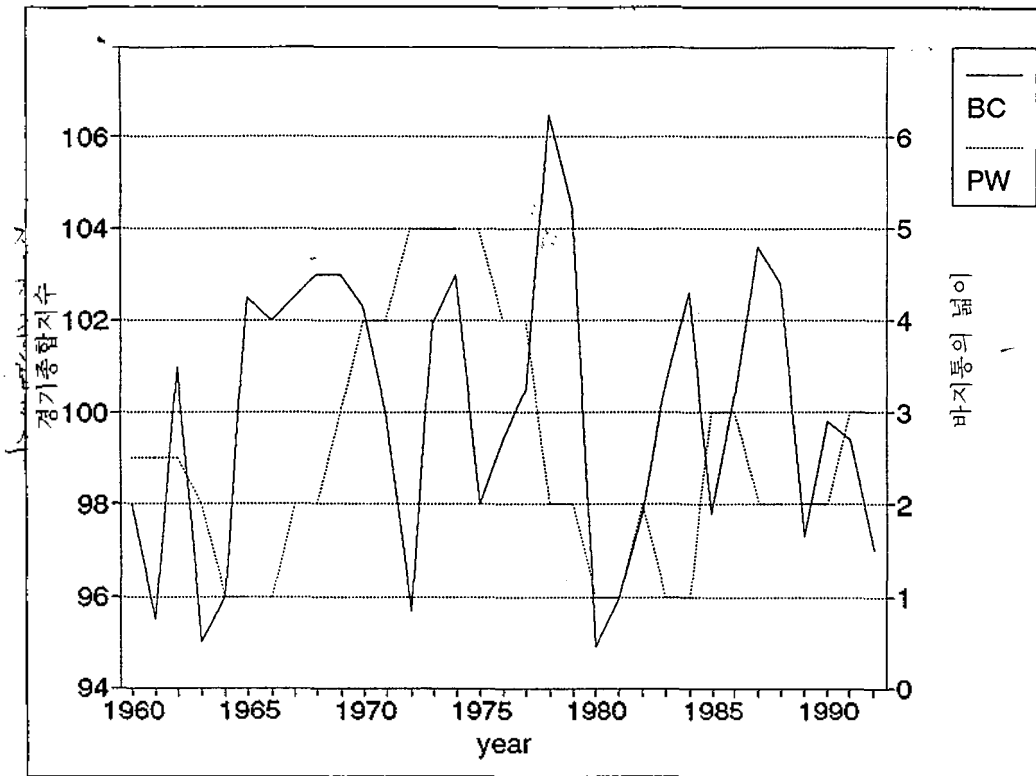
3) 칼라넓이와의 관계

<그림 5>를 통해서 칼라의 넓이 정도와 경기변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두 cycle이 부분적으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경기변동과의 관계가 약하다.

4) 바지통과의 관계

<그림 6>을 통해서 바지의 넓이 정도와 경기변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바지통 cycle은 경기변동 cycle과 확실한 방향의 움직임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기변동과 직접적인 관계보다는 일정한 유행주기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경기 변동과 의복실루엣과의 상관관계



<그림 6> 경기변동 cycle과 바지통넓이의 cycle

<표 5> 경기변동과 의복실루엣간의 상관계수

의복의 각 요소	치마길이	치마폭	칼라	바지폭	경기동행지수 변동치
치마길이	-	0.452**	-0.094	-0.071	-0.457**
치마폭	0.452**	-	0.137	0.271	-0.600***
칼라	-0.094	0.137	-	0.624***	0.249
바지통	0.071	0.271	0.624	-	-0.039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0.467***	0.6009***	0.249	-0.039	-

*** :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 : 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 : 10%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경기변동과 의복의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표 5>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스커트 길이, 스커트 폭은 경기변동과 각각 5%, 1%유의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칼라 넓이와 바지통은 경기변동과 거의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커트 길이와 폭은 正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칼라 넓이와 바지통이 正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스커트 길이가 길어지면 스커트 폭이 넓어지고 스커트 길이가 짧아지면 스커트 폭이 좁아진다’는 의미이며, 칼라가 넓어지면 바지통도 넓어지고, 바지통이 좁아지면 칼라 역시 좁아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 경기변동과 의복 실루엣의 회귀분석

의복의 각 요소	α	β_1	R ²
스커트 길이	5.60*** (8.87)	-0.52** (-2.42)	0.18
스커트 폭	3.43** (14.86)	-0.27*** (-3.45)	0.33
칼라 넓이	3.47*** (13.77)	0.10 (1.18)	0.02
바지통	2.91*** (9.68)	-0.02 (-0.18)	0.05

*** :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 : 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 : 10%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표 7> 경기변동, 패션 자체 움직임과 의복 실루엣의 관계

의복의 각 요소	α	β_1	β_2	R ²
스커트 길이	2.57*** (2.73)	-0.42** (-2.47)	-0.59** (3.78)	0.50
스커트 폭	2.68*** (4.06)	-0.24*** (-3.01)	0.23 (1.22)	0.35
칼라 넓이	0.98* (1.78)	0.06 (0.91)	0.71*** (4.78)	0.52
바지통	0.44 (1.08)	-0.11* (-1.77)	0.86*** (6.73)	0.66

註) ()속은 t값이다.

*** :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 : 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 : 10%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이때의 회귀식은 $Y = \alpha + \beta_1 x_1 + \beta_2 x_2$ 로 나타난다.

여기서 Y는 의복의 각 요소 4가지를 의미

x_1 는 경기동향지수 순환변동치

x_2 는 前年度의 Y값

3. 경기변동과 의복 실루엣과의 관계

경기변동이 의복실루엣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스커트 길이, 스커트 폭, 칼라 넓이 및 바지통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服飾變化에 미치는 경기변동만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경기변동을 설명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나타난 것처럼, 스커트 길이, 스커트 폭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칼라 넓이 및 바지통은 분석결과가 좋지 않았다. 스커트 길이 변화의 경우에는 약 18%가, 스커트폭의 경우에는 약 33%가 경기변동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나머지 82%, 67%가 경기변동 외의 다른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복식변화를 설명하는 요인으로써 경기변동외에 패션 자체의 움직임을 반영시키기 위해 前年度의 패션특징을 회귀분석에 포함하여 추정한 결과가 <표 7>이다.

<표 7>에서 보는 것처럼 \bar{R}^2 (결정계수) 값에 의해 경기변동과 패션 자체 움직임이 복식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스커트 길이 변화에서는 약 50%가, 스커트 폭 변화에서는 약 35%가량이 경기변동요인과 패션 자체 움직임 요인에 의해 변화됨이 판명되었다. 그러나 칼라 넓이 및 바지통 변화에서는 경기변동요인과 패션자체움직임의 요인이 각각 52%, 66%가량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아, 칼라 넓이 및 바지통의 변화는 경기변동 요인보다도 패션 자체 움직임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석된다.

V. 結 論

지금까지 고찰한 경기변동과 여성복식 실루엣 변화과정과의 관계분석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경기변동과정에서 경기가 상승일 때 스커트길이는 짧아지는 추세를 나타내거나 짧게 나타났다고, 스커트 폭은 좁아지는 경향을 보이거나 혹은 좁게 나타났다. 반면에 경기가 후퇴, 둔화할 때, 스커트 길이는 길거나 또는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스커트 폭은 넓거나 혹은 넓어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칼라 넓이 및 바지통의 변화는 경기순환과 뚜렷한 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2. 경기변동과 복식실루엣의 각 요소와의 상관관계를 구한 결과, 스커트 길이, 스커트 폭의 변화는 경기변동과 비교적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칼라 넓이와 바지통의 변화는 경기변동과 거의 무관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단지, 칼라 넓이와 바지통의 변화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3. 복식 실루엣 변화에 경기변동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 스커트 길이 변화의 경우에는 약 18%, 스커트 폭의 변화의 경우에는 약 33%가 경기변동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칼라 넓이와 바지통은 분석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다.
4. 前年度의 복식실루엣 변천 특성을 반영한 패션자체움직임 요인과 경기변동요인을 함께 추정한 결과, 스커트 길이의 변화에는 50%, 스커트 폭의 변화에 35%, 칼라 넓이의 변화

에 52%, 바지통의 변화에 66% 가량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칼라와 바지통은 경기변동보다도 패션자체움직임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參考文獻

1. 김기화, 경기순환이론(서울: 다산출판사, 1990)
2. 白雄基, “경기순환과 정책대응의 방향”, 한국개발연구원, KDI정책포럼, 제34호(1994)
3. 徐相穆, 金大泳, “경기변동과 경기종합지수”,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1981)
4. 서울경제일보사, “서울경제일보”, 서울: 서울경제일보사 (1993년 6월 2일)
5. 宋丙洛, 한국경제론(서울: 박영사, 1987)
6. 丁雄鎮, “우리나라 경기변동의 기준순환일에 관한 연구”,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실, 금융경제연구 제7호(1990)
7.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경기동향지수”, 한국은행 조사월보(1972)
8. 한국은행, “경기변동과 금융정책”, 한국은행 조사월보(1974)
9. 三原淳雄, 김영작 역 「동경증시 대폭락」, (서울:財 테크 도서출판 삼문).
10. Anspach, Karlyne, *The Why of Fashion*(Arnes: Lowastute, 1969)
11. Horn, Marilyn J., *The second skin*(Boston: Houghton Mifflin Co., 1975)
12. Greenwood, Kathryn Moore and Murphy, Mary Fox, *Fashion Innovation and Marketing*(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78)
13. Kroeber, Alfree L. and Richardson, Jane, *Three Centuries of Women's Dress Fashion: A Quantitative Analysis, In Wills Gordon & Midgeley David, Fashion Marketing*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Ltd., 1973)
14. Lauer, Jeanette C. and Lauer, Robert H., *Fashion Power*,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1981)
15. Troxell, Mary D. and Elain Stone, *Fashion Merchandising* (New York : McGraw-Hill Inc., 1981)